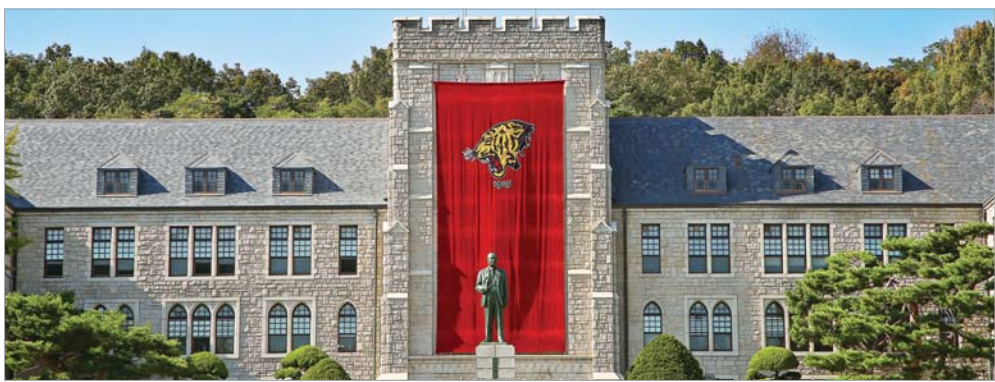




기회균형·재외국민, 계열 선발 전환

고려대학교

수시 2731명 선발, 학폭 조치사항 적용
학생부종합 1675명·교과 650명 모집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년 대비 28명 늘어난 273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 종합전형 1675명, 학생부교과전형 650명, 논술전형 351명, 실기·실적 위주 전형 55명이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기회균형전형과 재외국민전형(2%)의 모집 방식이 기존 학과 단위에서 계열 단위 선발로 변경된다. 이를 제외한 주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등은 2026학년도 체제를 유지하여, 수험생과 진학지도 교사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기회균형전형과 재외국민전형(2%)의 모집 방식이 기존 학과 단위에서 계열 단위 선발로 변경된다.

수시모집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 성적 90%와 서류평가 10%를 합산하고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하여 지원자의 학업역량, 자기계발의지, 공동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고려대의 모든 수시 면접 평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업우수전형은 서류평가 100%에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계열적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성적 40%를 합산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성적과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려대는 대입 공정성 제고와 인성 평가를 위해 입학전형 전반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서류평가가 포함된 전형은 정성평가가 방식으로, 논술전형과 정시 수능위주전형은 정량 감점 방식으로 적용된다.



정한 입학처장

논술우수자전형 늘리고 약학과 도입



삼육대학교

수시 1029명 선발, 전년보다 204명 증가
학교장추천전형에 '내신 5등급제' 적용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1029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선발인원 825명 대비 24.73%(204명 ↑) 대폭 증가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논술우수자전형'의 확대다. 신학과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에서 전년(154명) 대비 79.87%(123명 ↑) 증가한 277명을 선발한다. 약학과도 올해 처음으로 논술전형을 도입해 5명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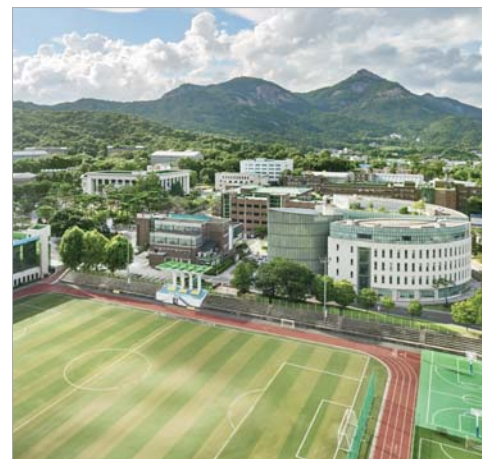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논술고사 성적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일반학과 기준 국어·영어·수학·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다. 단,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논술고사는 '약술형 논술' 형식으로 출제된다.

일반학과의 경우 국어와 수학 총 13문항을 80분간 푼다.

세움인재전형(종합전형)은 231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2단계 면접은 제시문 없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질문하는 방식이다. 시간은 8분 이내다.



세움인재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약학과만 있다.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다.

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은 131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한다.

학교장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개편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전면 도입되는 '내신 5등급제'를 1년 앞당겨 적용한다.

단, 약학과는 기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좌우되는 최상위권 특성상 변별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약학과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26명을 선발한다. 지난해(16명)보다 수시 인원이 10명이나 늘었다.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학여플라이에서 실시한다.



이규일 입학처장

자유전공 신입생 292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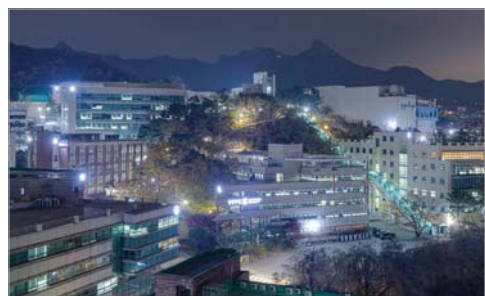
수시 1958명 선발, 서울 947명·천안 1011명
교과추천전형 학생부교과 100% 반영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외를 포함해 총 1958명을 선발한다. 캠퍼스별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 947명, 천안캠퍼스 1011명이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에서 자유전공은 총 292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67명, 이공계열 45명, 예체능계열 12명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교과추천전형)와 논술(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천안캠퍼스는 인문사회계열 17명, 디자인/예술계열 22명, 공학계열 77명을 선발하며 스포츠융합자유전공학부에서도 52명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정원 내·외를 포함해 94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교과추천전형) 34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226명, 논술(논술전형) 98명, 실기/실적(실기전형) 138명이다.

학생부교과(교과추천전형)의 지원자격은 202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국가안보학과 제외)이다.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지원 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문 및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 중 애니메이션전공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예체능계열은 올해부터 모집단위에 스포츠건강관리전공과 조형예술전공이 추가됐다. 이로써 기존의 애니메이션전공을 포함해 총 3개 전공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캠퍼스 논술(논술전형)은 학생부교과 10%와 논술고사 9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애니메이션전공 제외)과 융합경영학과, 국가안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약술형 논술을 실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천안캠퍼스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정원 내에서는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40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228명, 실기/실적(실기전형, 특기자[체육]전형) 218명을 모집한다. 신입생 총 1011명을 선발한다.



유하연 입학처장

수능최저 완화·논술 90%로 상향



수시 1740명 선발, 지능전자공학부 신설
교과·논술 수능최저 '2개 합 6등급 이내'

송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3160명)의 약 55%인 1740명(정원의 포함)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송실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의 주요 특징은 ▲학생부종합(SSU미래인재전형) 이원화(서류형 신설)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논술(논술우수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지정과목 폐지, 전 계열 2개 합 6등급) ▲논술(논술우수자전형) 반영비율 변경(논술 80%→90%) ▲예체능우수인재전형(연기, 연출) 반영비율 변경 등이다.

송실대학교는 올해 기존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전공)과 전자정보공학부(IT융합전공) 두 모집단위를 통합해,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능전자공학부'를 신설하고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1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SSU미래인재전형(면접형)은 올해 총 55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는 서류종합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3.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평가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신설된 SSU미래인재전형(서류형)은 총 16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종합평가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형과 마



찬가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총 46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며,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은 80%, 진로선택 과목은 20%의 비율로 평가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248명이며, 전형 방법은 논술 비중이 기존 80%에서 90%로 확대되어 논술 90%와 학생부 교과 10%를 적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교과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에만 있으며 수능 응시과목 제한 없이 전 계열 2개 합 6등급 이내로 맞추면 된다.

송실대는 3년 연속으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송실대는 수시모집 원서를 9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장성연 입학처장